

# 서울행정학회

## 2027년 학회장 출마 소견서



서울행정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행정학회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임동원입니다.

서울행정학회는 국내외에서 발전된 행정이론의 한국적 적실성을 탐구하며,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서 행정 이론과 정책 담론을 성찰해 온 학문 공동체입니다. 1983년 관악행정연구회로 출발한 이래, 우리 학회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실천적 논의를 통해 한국적 행정연구의 토대를 다져 왔고, 이러한 전통은 여러 세대 회장단과 회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참여를 통해 축적된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행정학회는 행정학의 학문적 성과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문제에 대한 성찰과 정책 담론의 형성을 통해 학문과 사회를 연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할과 성과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학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울행정학회는 다변적인 사회문제를 담기 위해 회원들의 연구 주제가 확장되고 방법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술대회와 학회 운영이 이러한 학문적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정책 현장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학회는 변화하는 연구 환경 속에서 회원들의 성과와 문제의식을 어떻게 연결하고 축적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공동체 비전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구공동체로서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학술 활동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학술대회가 행정학 연구의 신뢰받는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연구기획 세션과 주제 중심 학술 활동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중견 연구자의 통찰과 신진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격의 없이 교류하는 기획 세션을 활성화하는 한편, 연구 설계와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방법론 세션을 정례화하여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션 구성의 다양화를 통하여 발표 중심을 넘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술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이를 통해 학문적 연속성과 창의성이 공존하는 연구공동체의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실천공동체로서 학문과 정책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 현안과 공공정책 과제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공론화하는 장을 확대하여, 우리 학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신뢰받는 지적 파트너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성과가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되고 사회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적 정책 환경 속에서 공공부문의 신뢰받는 지적 동반자로서 학회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참여공동체로서 회원의 참여와 성장이 학회 활동 전반에 살아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강화하여 신진 연구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개방성을 확대하여 현장 전문가가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회 운영과 사업이 일부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위원회 중심의 참여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회원 각자의 문제의식이 학회

활동 속에서 교류되고 확장되는 능동적인 공동체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식공동체로서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학회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운영을 넘어 중장기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연구 성과와 논의의 결과가 학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 기반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를 체계화하여, 세대가 바뀌어도 학회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신뢰받는 지식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관악행정연구회로부터 이어진 우리 학회의 정통성은 연구와 사람의 연결에 있습니다. 저는 학회를 통해 경험했던 배움과 교류의 가치를 회원 여러분과 함께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의 가치는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한 변화는 담대하게 추진하여, 서울행정학회가 회원 누구에게나 안식처이자 성장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서울행정학회 회장 후보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임동완 올림